

다산포럼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재용 전 부회장이 지금 교도소에 있다. 박근혜·최순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죄로 구속됐는데 내년 7월 까지 실형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할 듯이 예고성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1월 재구속 직후부터 대통령 스스로 바랍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용의 사면이 부당한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간추려 적겠다.

첫째,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2016년 늦게일부터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가설 감옥에 이재용이 조형물 모습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판도(判處: 판사도록)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가 대법원의 상고심과 이어 열린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판도들이 특실거리는 법원에서도 차마 집행유예로 낮출 수는 없었던 엄중한 사안이다. 판결문에는 뇌물 제공의 목적이 '불법 경영권 승계'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등 많은 시민단체

이재용, 사면도 가석방도 안 된다

가 기자회견이나 의견서 제출 등으로 사면·가석방 반대 활동을 하는 이유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재용이 불법 승계와 관련하여, 아직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뇌물수수보다도 더 엄중하므로 사면·가석방은 안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사기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질질 끌다가, 늦게나마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대 범죄이다. 자본 천국 미국에서도 30년 이상 징역감이다. 법치 수준이 그 정도나 되기에,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꿈도 못 꾸다.

이재용은 미래전략실 간부들을 시켜 국민연금을 조종하였고 수많은 소액주주까지 속였다. 삼바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조작하여 삼바의 기업 가치를 3천억 원 미만에서 4조 원 이상으로 부풀려 속였다. 1심 재판이 9차까지 진행되었다.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광복절 이후에나 첫 재판이 열린다. 회계 사기든 마약 범죄이든 증거까지 인멸하였다. 사면·가석방은 이 범죄자에게 날개를 달아 주고,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셋째, 이재용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 기소조차 안 된 범죄 또한 많다. 피해자가 더 취약한 계층인 경우이다. 검도(檢査: 검찰도록)의 눈에는 피해자가 만만하게 보인 것이다. 이병철의 창업 이래 '무조조 경영'을 위해 온갖 노동자 탄압이 자행되었지만, 진

상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삼성생명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투쟁에 이어, 다시 다른 암보험 피해자들 그리고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이어 이재용이 삼성을 지배하는 두 번째 경료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로 미해결이다. 이재용 재구속 직후, 이재용이 삼성전자 등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다. 법무부는 재구속 직후 이재용에 대한 취입 제한을 통보한 바 있다. 이재용에 의한 불법행위에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강남역이나 삼성 본사 앞에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광복절에 이재용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리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의 26년 군사독재 이후 대통령 직선제는 쟁취했지만, 경제의 독재화는 점점 노골화되어 이재용 등 '불부세'(불법부패세습) 재벌 왕국의 금권이 청와대와 국회·법원·검찰 그리고 언론과 대학까지 장악하고 있다.

아, 다산 선생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까? 이재용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지식인 서명운동으로 충분하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서명운동을 같이 하는 배움벗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 경제 권력을 이재용 등 '불부세'들에게 빼앗기고 자녀들까지 고생시키시는 나라님들에게는 더욱 미안하다.

청춘특목



채동주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2년

‘코로나 잠잠해지면 보자.’ 어느 날 우리의 일상을 뒤바꾼 기약 없는 약속이 생겨났다. 이처럼 무의미한 약속을 한 지도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거리 두기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커피를 만 번씩 저어가며 달고나 커피를 만들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랜선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팬데믹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폭증하다 사그라들기를 반복했다. 우리의 희망도 점점 일그러지고 있다.

‘코로나 사피엔스’의 저자 중 한 명인 김영일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강요한(WANT)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LIKE) 것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상대적인 사회적 틀이나 규정보다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의 척도는 무엇인가. 행복의 척도를 오직 ‘나’라고 말한다면, 이전 또 다

언택트 시대, 우린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른 모순이다. 내가 아닌 타인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지 사회가 강요한 것이라고 용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년이 넘도록 언택트(Untact)를 유지해 온 인류의 모습이 어떤가? 그들의 일상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국민들의 우울, 불안으로 인해 국가는 상담센터를 만들었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 치료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신경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행복의 척도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누군가가 말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팬데믹이 들이닥치고 나니 철저히하게 고립된 사람들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문밖으로 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또 반대로 언택트 시대에 완벽히 적응해버린 사람들도 있다. 특히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영원히 자신의 동료와 친구들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실 이걸 만약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전염병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세상은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게 거리 두

기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원사부터 공동체 생활에 특성화되어 있는 인간이 언택트 시대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 두기는 피할 수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유로운 만남을 원한다. 천 조각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가 되는 기적을 원한다.

팬데믹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는 지름길이 있다. 자연친화적인 삶, 우리는 미니멀리즘에 만족을 느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인류의 마비는 자연에게 기회였다. 공장을 멈추고 도로에 자동차가 줄며 잠깐이지만 회복을 했었다.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며 다시 지구는 멈췄다. 폭염이 지속되고, 에어컨을 틀고, 다음 해가 되면 더욱 심각해지고. 모두 지구 종말의 사이클을 돌리는 일이다. 또한 병하 속에는 고대 바이러스가 묻혀 있는데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 의외의 창궐 또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을 두고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 인류의 혁신이 인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 종말 이후에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순 없다. 우리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늘 그랬듯 또다시 극복할 것이다. 혁신이 아닌 자연친화적으로.

잘못된 비유에 또다시 고통받는 ‘5·18’

일어난 민주화운동이고, 이를 폭력적으로 억압한 세력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5·18에 대한 학술적 자료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쓰여 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말처럼 5·18의 명칭을 구태어 외국어로 된 사료에서 발췌하여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미국의 ‘The Civil War’를 ‘남북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미국에서 ‘The War Between North and South’라고 바꿔 부르지 않듯이 말이다. 당연히 5·18과 관련된 학술 연구에서는 5·18을 ‘광주 반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대표의 말대로 구태어 5·18의 명칭을 외국어 명칭에서 번역하여 사용한다 해도 ‘광주반란’은 전혀 ‘직역’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은 영어로 ‘Gwangju Uprising’ 혹은 ‘May 18th Democratic Uprising’이라고 칭한다. 이때 ‘Uprising’은 모든 형태의 ‘권력에 대한 시민의 무장 항거’를 일컫는 중립적인 용어이다. 일례로 4·19 혁명 초기 학생들의 시위를 서구 언론에서 보도할 때 ‘Uprising’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반란’은 사전적으로 ‘사회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규모의 집단적 행동’이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통용된다. 법률상으로도 ‘반란’은 군형법에 명기된 중죄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영한사전의 ‘Uprising’을 보고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반란’으로 번역한다면, 이는 합부모 광

의의 단어를 협의로 해석한 ‘오역’이다. 특히 ‘반란’은 1990년대 이후 극우 인사들이 5·18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을 위해 사용한 ‘의도된 오역’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이 ‘광주반란’은 이 대표의 말처럼 ‘직역’이 될 수 없다.

‘광주반란’은 학술적으로 사용되지도 않거나와 사용할 수도 없으며, 특히 정치권에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점령군’은 당시 미군의 포고령과 신문 기사에 명기한 것은 물론 현재까지 학술 연구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이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각각 연설에서 미군 ‘점령’이라는 개념을 썼을 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점령군’이라는 개념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다.

반면 ‘광주반란’은 일부 역사를 폄훼, 왜곡하는 이들의 선동에 가까운 억지 조어이기 때문에 ‘점령군’과 직접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대표의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잘못된 비유로 인해 극우 세력의 ‘억지 선동 조어’를 학술적인 용어처럼 언급하고 만 셈이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점령군’ 발언을 두고 편향된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해 현실과 미래를 논하려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이 대표의 잘못된고 위험한 비유가 그의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社說

14좌 완등 후 실종 김홍빈 구조에 최선을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7) 대장이 파키스탄 브로드피크(Broad Peak, 8047m) 정상에 올라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완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 대장은 하산 도중 실종돼 구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21 김홍빈 브로드피크 원정대’와 아시아산악연맹에 따르면 김 대장은 어제 오후 4시 58분(현지 시각) 브로드피크를 등정한 뒤 하산하는 과정에서 해발 7700~7800m 지점의 크레바스에 빠졌다. 이에 인근에 있던 해외 원정대가 구조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주마(등강기)가 월거워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장의 8000m급 14좌 완등은 장애인으로서의 세계 최초이며, 비장애인 산악인까지 포함하면 세계에서 44번째, 국내에서도 일곱 번째 대기록이다. 하지만 이들 봉우리는 살을 에는 혹한과 제트기류, 희박한 공기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어 ‘죽음의 지대’로 불린다. 이런 악조건과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이뤄 낸

김 대장의 14좌 완등은 그야말로 ‘인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원정도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하리까지 빠지는 눈과 곳곳에 도사린 대형 크레바스(빙하의 갈라진 틈)로 인해 고소 캠프 구축과 등로 개척에 애를 먹었다. 제4캠프(7200m)를 출발한 이후 정상에 다다르기까지 무려 18시간 동안 악조건투를 벌여야 했다.

김 대장은 지난 1991년 북미 매켄리(6194m) 단독 등반 중 등상에 걸려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1997년 유럽 엘브루즈(5642m)부터 2009년 남극 빈슨매시프(4897m)까지 12년 만에 세계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장애는 불행한 게 아니라 단지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며 장애인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왔다. 정부와 대한산악연맹은 불굴의 도전정신을 실천한 김 대장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수색 및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감염에 예외 없다’ 젊은이들 자제를

일부 젊은이들이 코로나 확산에도 ‘나 몰라라’ 하며 유흥을 즐기고 있다. 철이 없는 건지 남치는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 건지 알 수 없다.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감염 위험에 대해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들의 일탈은 지역 사회 감염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와 서구 상무지구 술집을 돌러봤다. 지난 17일 밤 11시께 구시청 일대. 술집은 젊은이들로 가득 찼다. 8·9명씩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영업시간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주점과 바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의 줄은 줄어들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 상무지구 일대. 이곳도 20~30대로 붐비긴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술

집들이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치명통 한 헌팅포차의 경우 일고여덟 명이 테이블을 이어 붙인 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입장할 때는 마스크를 썼지만, 업소에 앉자마자 곧바로 벗어던졌다. 음악 소리와 함께 덩달아 술에 취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구시청 사거리에서 만난 한 20대 젊은이는 “우리 지역보다는 수도권이 더 문제지 않느냐”면서 “코로나가 확산세라고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걸리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설마 내가 코로나에 감염 될라고?” 아마도 그런 생각인 듯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다. 내가 걸리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모두 피해를 입힌다. 젊은이들의 자제와 인내를 바란다.

無等鼓

폭염이나 폭우 등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선 서유럽은 지난주 100년 만의 폭우로 대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독일·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등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폭우로 인한 사상자가 최소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폭염 또한 지구촌을 불태우고 있다. 지난 2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기온이 섭씨 49.6℃까지 상승, 7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도 각각 95명과 20명이

폭우와 폭염 현상은 모두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상공의 공기 덩어리가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어 결국 ‘물 폭탄’이 터지는 현상이 바로 집중호우다. 폭염은 열돔 현상이 원인인데, 지상 5~7km 높이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반구(半球) 형태의 지붕을 만들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면서 발생한다. 이는 해수면 온도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

이달 들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폭염 특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여름 초입부터 불볕더위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토더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폭염에 각별히 대비를 해야겠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마른장마가 한 차례 지나갔지만 지난해 전남 곳곳을 덮쳤던 수해를 생각하면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구위를 꼼꼼히 돌아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기고



최낙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4년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과 관련 “‘점령군’이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광주민주화운동도 학술적 자료를 보고 직역해 ‘광주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그런 뉘앙스로 보수 인사가 썼다면 학술적인 용어라면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겉으로만 보면 ‘광주반란’은 잘못된 용어라는 주장을 하는 듯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위험한 논리적 오류가 숨겨져 있다. 바로 ‘(미) 점령군’처럼 ‘광주반란’이 학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논리다. 이 대표는 ‘광주반란’을 부정적인 용어라고 언급하면서도, 결국 ‘점령군’이라는 용어와 동등하게 비교하며 두 용어 모두 ‘학술적 용어이지만 중립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에서 한국인에 의해